

2050년 누적성장률 30% 이상 하락... 성장엔진 ‘빨간불’

한은 ‘인구고령화가 전남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남 고령인구 비중 28.5% 최고...광주도 고령화 가속

1인당 GRDP 2%p ↓... 청년 정착·일자리 확대가 관건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이 겹치면서 전남광주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지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전남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 지역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9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전남·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8.5%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8.8%로 전국 평균인 21.2%를 밑돌았지만 고령화 전

행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49.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38.2%로 추정된다. 지역 인구 2~3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구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성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2000~2024년 17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약 0.5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따른 결과다.

산업별 영향도 뚜렷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림어업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1% 증가 시 1인당 GRDP가 약 0.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도 0.12%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은 0.51%의 감소 효과가 추정됐다. 다만 농업을 자본으로 대체할 여지가 큰 광업·제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도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 기업의 자본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에서도 고령화가 총자본형성과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의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 유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00~2025년 누계 기준 생산

가능인구 순유출은 청년층인 15~34세에 집중됐다. 이 기간 청년층 순유출 규모는 전남 32만6000명, 광주 10만6000명에 달했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의 연령대별 편중도 심화했다. 지난 25년 동안 20대 미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면서 고령화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구조다.

지역경제 성장세 둔화도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전남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대 연평균 3.1%에서 2010년 이후 1.7%로 낮아졌다. 광주 역시 같은 기간 3.7%에서 3.3%로 둔화했다.

특히 전남은 고령인구 비중 증가폭이 큰 동시에 1인당 실질 GRDP 증가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실제 지역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녹록지 않다. 장래인구추계를 분석에 적용한 결과 2025~2050년 고령화로 인해 1인당 GRDP 증가율은 연평균 전남 1.4%p, 광주 1.8%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2025~2030년에는 전남 2.1%p, 광주 2.8%p까지 성장제약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과 비교하면 2050년까지 누적 성장률 하락폭은 전남 30.5%, 광주 37.8%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고령화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결과로, 실제 지역경제 성장을 전망치와는 구분된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한 1인당 GRDP 증가율 하락폭은 연평균 전남 2.3%p, 광주 3.0%p로 추정됐다.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업이 위축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로 공공행정 부문은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확

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머물고 유입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활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경우 청년층 유출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은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어촌 인력 부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과 여성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전남광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노동생산성 제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성장 제약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5~2030년에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재난·안전사고 예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여수광양항, 10월부터 폭염·한파 등 14종 우선 적용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내 항만 최초로 재난·안전을 위한 ‘여수광양항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경보 단계를 운영해 집단 지성에 의한 조직적·집단적 대응력과 사고 발생 전 조치를 강화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다. 항만공사는 이 시스템에 따라 위험 징후가 높아지면 현장 관리자가 ‘사고예방대책회의’를 주관해 사고의 사전 차단 및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 된다. 조기경보시스템에는 그동안 항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폭염 및 한파, 풍수해, 화재, 도로교통사

고, 항만시설 파손,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10개 분야 14종의 사고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항만공사는 지난달 항만도로 교통사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사고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이달 중 조기경보 발령 기준을 최종 확정할 뒤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최관호 항만공사 사장은 “여수광양항의 안전은 항만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중점”이라며 “이번 여수광양항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GICON,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공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접수... 10월 1일 임용 예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AI) 산업 융합과 확산을 이끌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공개 채용한다.

GICON은 전남광주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특별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AI 분야 전문성과 공공기관 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글로벌 AI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남광주 AI 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이끌게 된다. 사업단의 주요 사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 인프라 구축·운영을 비롯해 기업 육성, 인재 양성, 산업 분야별 AI 실증 등 전남광주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다.

지원 자격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면서 공공기관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심사하고, 면접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전형은 다음달 9일, 면접시험은 16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8일 발표된다. 임용 예정일은 10월 1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em-ploy@gicon.or.kr)을 통해 진행된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GIC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GICON 인사총무팀(062-610-2904)으로 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전남본부는 19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144개 농·축협 신용상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농협,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방향 공유

금융사기 예방·고객 보호 위한 실천 의지 다져

농협전남본부는 19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144개 농·축협 신용상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증시로의 자금 이동과 금리 변동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에 대응하고,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의 추진 방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전남농협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금리·부동산 동향을 통해 본 하반기 신용리스크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

략 △NPL펀드의 이해와 투자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NPL펀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경매 배당, 재매각, 추심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상품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포통장 근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Zero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사기 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수출·건설 호조에도 내수 경기는 ‘싸늘’

광주 생산·소비·고용 개선... 전남은 제조업·내수 부진

수출·건설 반동 속 청년층 고용 악화·인구 유출 과제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올해 2분기 수출과 건설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생산과 소비, 고용 등에서는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생산 증가에 힘입어 생산과 소비, 고용이 개선된 반면 전남은 수출과 건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전남 소매판매는 0.3% 감소했다. 건설경기는 광주·전남 모두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2분기 호남권 건설수주액은 3조292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39.1% 증가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건설수주액은 각각 333.4%, 114.1% 급증했다.

수출 역시 2분기 호남권 수출액은 20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분기보다 22.9% 증가했다. 전남 수출이 32.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광주도 2.5% 증가했다.

고용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2분기 호남권 취업자는 279만6600명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1만88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4.3%로 0.3%p 상승했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0.3%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2.9%p 상승한 9.8%를 기록해 청년층 고용 여건은 악화됐다. 인구 유출도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남았다. 2분기 호남권에서는 1522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에서만 3147명이 빠져나간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1087명, 870명 순유입됐다. 청년층이 빠져나가고 중장년층이 유입되는 구조가 이어진 것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코스피, 6400선 급락

원·달러 10개월만 1300원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매도세에 밀려 6400선에서 급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1개월 여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p(5.80%) 급락한 6471.17에 거래를 마감했다.

6528.77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세에 오전 9시 6분 을해 들어 스물다섯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4조6354억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4884억원, 1조3229억원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일(26만8500원) 대비 7.82% 급락한 24만7500원에,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166만2000원)보다 9.75% 빠진 150만원에 거래를 끝냈다.

SK스퀘어(-11.54%)는 13만1000원 떨어진 100만4000원, 삼성생명(-11.11%)은 3만4500원 하락한 27만6000원에 마감했다. 이 밖에 삼성물산(34만7000원, -5.96%), 현대차(41만4000원, -4.83%), NAVER(20만8000원, -4.15%), 삼성전기(138만7000원, -3.68%) 등이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7만7000원, 2.71%), LG에너지솔루션(35만7500원, 1.85%), 삼성바이오로직스(154만4000원, 0.85%) 등 일부 종목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834.2)보다 9.74p(1.17%) 낮아진 824.46에 거래를 끝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400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만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